

서울시교육청, 9.7억 투입해 민원상담실 150곳 구축한다

개별 교원 대신 기관 중심 대응 CCTV, 비상벨 등 장비 설치도 업무용 휴대전화로 공적소통 나서



서울시교육청 용산 청사

서울시교육청이 교원 보호를 위해 학교 민원 대응 체계 정비에 나선다. 교육 활동 침해성 민원과 폭언·폭행, 교원 개인 연락처 노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초·중·고·특수학교 150곳에 민원상담실을 시범 구축하고 안전장비와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에 나선다. 올해 투입 예산은 9억7000만원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교육활동 침해 학교민원 및 폭언·폭행 발생, 교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 노출로 인한 부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학교가 개별 교원 대신 기관 중심으로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

이 목적이다. 사업은 ▲학부모 상담·생활교육 등을 위한 민원상담실 복합공간 조성 ▲CCTV·비상벨 등 학교 민원대응 안전장비 구축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민원상담실은 민원 응대뿐 아니라 학부모 상담, 생활교육,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개별 학생 교육지원 공간으로 활용된다.

학교 상황에 따라 CCTV, 비상벨, 녹음전화기, 웨어러블캠 등 장비도 설치된

다. 비상벨 작동 시 교무실 등에 즉시 알림이 전달되도록 하고, 녹음·영상 기록을 통해 특이민원 대응과 사후 조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내 CCTV설치는 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조치다.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학교 정문·후문, 건물 출입구, 복도, 계단 등을 CCTV 필수 설치 장소로 규정했다. 지난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추진된 후속 조치로,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무용 휴대전화기 필요한 학교는 민원상담실 구축 지원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기기 구입과 통신비에 사용할 수 있다. 교원 개인 연락처 노출을 줄이고 공적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교원단체에서도 민원 대응 체계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전국 교원 89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직 이탈 및 신규 교직 기피 이유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이 28.9%로 가장 많이 꼽혔다. 교총 관계자는 "무분별한 학대 신고와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사전에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교직 기피 현상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활동 보호는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중심의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고려대 건물 옥상에 태양광 인프라 조성

SKT와 1.8MW 설비 구축 사업 착수 1069억원 이산화탄소 감축 기대 전기요금 약 3억5000만원 절감 추산



지난 12일 고려대 SK미래관 최중현홀에서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태양광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공식'이 열렸다. 기공식에 참석한 고려대 정순영 교무부총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과 SKT 김규영 엔터프라이즈사업본부장(부사장, 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려대

고려대학교가 서울캠퍼스 20개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한다. 연간 이산화탄소 1069톤을 줄이고 전기요금 약 3억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고려대에 따르면, 대학은 SK텔레콤과 함께 서울캠퍼스 내 태양광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전날 교내에서 기공식을 열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경영본관, 라이시움 등 서울캠퍼스 20개 건물 옥상에 약 1.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생산된 전력은 학교 운영에 직접 활용된다.

SK텔레콤은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과 운영 시스템 마련을 맡는다. 발전량과 설비 상태, 에너지 사용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제어·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고려대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약 1069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나무 약 21만38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연간 약 3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정순영 고려대 교무부총장은 "태양광 인프라 구축은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같은 조치는 학교 현장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 흐름과도 맞물린다. 교육부는 최근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 4378

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교육시설 전반에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고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대학가로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시설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립대학에도 태양광 설비 확충을 지원하며 교육 시설 전반의 에너지 전환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15만㎡ 규모 도시숲 리모델링

10개 시군 13곳서 추진



행신동 도시숲 리모델링 /경기도

경기도가 도심 내 노후 녹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정비에 나선다. 수목 보원과 생육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숲의 기능을 회복하고, 기후 대응과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용인시 고기근린공원 등을 포함한 10개 시군 13곳에서 총 15만㎡ 규모의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조성 이후 시간이 지나 기능이 약화된 녹지로, 수목 상태와 생육환경 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도심 녹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수목의 노쇠와 병해 피해 등으로 본래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7년부터 기존 녹지를 재정비하는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해왔다. 기존 공간을 활용해 토지 확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녹지 회복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정비는 단순 시설 보수에서 벗어나 수목 식재와 생육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다. 이를 통해 숲의 자생력을 회복하고, 생활권 녹지로서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찾는 녹색 쉼터로 재탄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사업은 화성시 병점근린공원과 의왕시 학의동 완충녹지 등 총 13곳에서 추진된다. 앞서 경기도는 2023년 10개 시군 21곳에 37억2800만원, 2024년에는 9개 시군 16곳에 33억3000만원을 투입해 도시숲 복원을 진행했다. 2025년에도 14개 시군 18곳에 44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사업을 이어왔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구리시, 반려동물 등록 사진신고 실시

2개월령 이상 반려견 의무 등록

구리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과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사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과 주소·전화번호 변경, 반려

견 사망 시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신고 기간에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미이행 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 등록은 가까운 동물 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에서 추진 중인 동물 등록제

지원사업과 연계해 등록이 가능하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시스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구리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유실·유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산업지원과 동물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4 해질 / 19:33

5월 14일 (목) 음력 : 3월 28일

수도권 날씨 15~31°C

운중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인천 13/29, 동두천 14/29, 가평 13/28, 파주 13/30, 서울 15/31, 양평 14/29, 인천 14/29, 수원 14/30, 용인 14/30, 평택 12/2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 ▲英·濠, 호르무즈 해협에 드론·군함·전투기 등 파견키로
- ▲日방산업체 수주잔고 15% 증가... "무기수출 허용에 더 늘었다"



- ▲'MBA 학위 파격 할인'...재정난 美대학, 학생 유치전
- ▲젠슨 황, 결국 트럼프 방종길 동행

/사진 뉴스

- ▲트럼프-시진핑 회담 선물...미국산 LNG 중국 직항
- ▲中매체, 트럼프 방종 직전 견제구... "대만 문제는 암초"